

여러분의 모든 업식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9면에서 계속

다는 것을 일러 주십시오. 알아야, 이해가 가야 자기를 진짜로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이 저 뿌리와 나무가, 뿌리를 뿔뿔히 찢어 놓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영혼의 근본 뿌리와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움직여가는 삼합이 한데 합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바로 주인공이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러니 때로는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라고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오. 주인공! 함격되게 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기록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해 가지곤 도저히 힘들어요. '너만이 할 수 있다!' 라고 야지오. 그리고 그렇게 뿔뿔히 찢어 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알아야 진짜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를 지금 누가 팔고 다니는테요? 자기 운전수가 없으면 차는 그냥 그만이에요. 한 부분만 고장이 나도, 파워를 일으켜도 자기 육신은 쓰러져요. 그런데 자기라고 그렇게 내세울 게 뭐 있었어요? 아니, 간장 공장만 파워를 일으켜도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이 자기라고 그렇게 뭐 있느냐고요. 간장 공장인 그런 게 아니라 에너지 피 공장에서도 고장이 나면 백혈병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병 자체가 바로 업식 속에서 파워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업식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데 가설이 돼 있으니 자기 스위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해 나가면서 도를 구하십시오.

도를 구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렇게 실천을 해 나가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서, 거기다가 맡겨서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켜고 해서 거기다가만 그렇게 하고 말은 막 하고 막 악을 쓰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속을 북북 긁어 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관한다고 하면서 자식들이 나가서 만약에 자고 들어온다거나 공부할 안 한다거나 마구 딴 짓을 한다거나 이런다고 "너 이놈의 세계, 뭐 어쩌고 어쩌고..." 하는 도로 뛰쳐나갈 수 있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맡겨 놓고 '이거는 모든 게 내 탓이로다. 상대방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낳았고, 내가 인연을 맺었고, 또 부모로부터 내가 나와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처님과 더불어 같이 마음을 한 데 합한 것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처님이요, 여러분도 부처님인데 자기의 몸속에 들어 있는 그 생중생들을 다스리질 못하기 때문에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 부처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잘 다스려서 한군데서 나오는 거 한군데다 놓고 돌아간다면 바로 부처가 되고 법신이 되고 응신이 되고 보현이 되고 관세음이고 지장이 되고 칠성이 되고, 자동적으로 자유재 자유재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이제 질문하십시오. **질문자(남):** 저는 범행제 심음회 총무로 있는 신도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죽은 다음의 세계, 사후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알고 행하다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아주 너끈히 웃을 수 있고, 죽지 않는 방법을 아실 겁니다. 몸뚱이는 사대모 홀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영혼 자체는 슬기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언제나 여래와 한자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범우님들하고 같이 항상 영원토록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 기록으로만 꼬달리는 사람들은, 그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죽으면 그 의식들이 집에도 있고 무덤에도 있고 친척간에도 있어요. 의식들이 그렇게 떠나질 못하고 자기 몸뚱이가 있는 줄 알아야, 자기 살던 그 관습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 가려니 물소용돌이를 벗어나야 될 텐데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못 가는 거고 또는 불 소용돌이를 지나야 될 텐데 타 죽을까 봐 못 가는 겁니다.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타 죽을까 봐 빠져 죽을까 봐 못 벗어나고, 또

끼리만 알아서 잘 살고 있구나.' 이럴 때에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계 유전이 돼서 자식들한테 내려오죠. 그러니까 천도해라. 마음을 공부해라. 돌아온 공부를 해라. 그렇다면 어떠한 영계성이든 유전성이든 세균성이든 업보성이든 다 한 겹의 물방울이다. 물방울을 열 개를 속에 넣어도 한 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고도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물도 말갹게 맑은 물로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대대로 대대손손 그런 유전에 의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만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부모나 미래의 자식이나, 과거에 살던 자기나 미래에 자기가 갈 거나 모든 걸 한데 합쳐서 지금 막 요리를 하는 거죠.

막 그냥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막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작업만 한다면 그계 참신이고 관법입니다. 집어넣는 그 수행만 한다면 자동적으로 생안이 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집어넣는 수행만 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살아야 할 테니까 '너만이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 어 줄 수 있다. 너만이 나쁜 짓을 안 하게 할 수 있어.' 하시고 속상하면 '아, 마음을 싱그럽게 하고도 오래 살지 못하는데 아니, 왜 마음을 이렇게 속상하게 해 주느냐.' 이렇게 하시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몸뚱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약속할 것은요, 여러분이 진짜로 여항 속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려면 아주 반드시 '마음은 체가 없구나. 마음은 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됐다 저게 됐다' 마음대로 자유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알아서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여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면 아주 반드시

'마음은 체가 없구나.'

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됐다 저게 됐다

마음대로 자유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알아서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왔으니까 나하고 부딪침이 있고 나하고 인연이 된 거지 내가 없는 데 어찌 인연이 됐겠나. 그러니 모든 게 내 탓이로다.' 그리고 선 '모두 저렇게 안되도록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자기한테 다 놓고 부드러운 말을 해 주면서, 부드러운 행을 해 주면서, 중오하지 말고 미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마음속으로 그렇게 행한다면 그쪽까지도 불이 들어오므로써 그쪽까지도 나한테 조건 없이 사랑을 할 수 있는 화합심이 생기고 자식들도 그 마음이 바뀌어서 아주 출중한 효자 효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우리 생활 떠나서 부처님 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없이 부처님이 어디 있으며 불법이 어디 있으며, 생활이 없이 어떻게 부처님 법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란 부처님이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처고, 부처님도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마음이 절대적으로 같이 공생·공용·공체·

사람이 죽으면 중음신 상태에서 생전에 지은 업에 따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축생계로 나오기도 하며 육도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심령과학의 노력으로 과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큰스님의 가르침으로 공부를 잘 하는 분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분은 못하는 대로 수행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 저희는 죽으면 어떤 마음의 차원이 되며 선원 범우들도 다시 만날 수 있는지요?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랍스님: 하하하... 모두 마음의 차원에 따라서 돌아가는데, 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과 한 사람들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이 도리를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두를, 업을 없애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는 깨침의 도리를 일러 주기 위해서 자꾸 생활에서 닦쳐 오니까 그런 수련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기 한 시간 전에 이 마음의 도리를

그 모든 업인들이 뭉쳐져서 보이는 곤충들, 짐승들 또는 귀신들이 모여 있는 데를 넘어서려니 그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보여서 못 넘어가죠. 못 넘어가니까, 그 업 굴레에서 무명 굴레에서 악연 굴레에서 못 빠져나가기, 그렇게 자기가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창살 없는 감옥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나간 차원 그대로 이 세상에 모습을 가지고 나오죠. 그러니 그 관습에 젖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로도 되고, 돼지로도 되고, 닭도 되고, 뭐 별거 별거 다 되고, 사람도 될 수 있고 이러한 거죠.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 왜 본체만체하느냐. 왜 나는 안 주고 너희들만 먹느냐.' 하고 귀찮게 구는 거죠. 자기 몸뚱이가 살아 있는 줄 알고거든요. 지금 자기라는 착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못 벗어나서, 의식적으로 자기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내가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

끼리만 알아서 잘 살고 있구나.' 이럴 때에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계 유전이 돼서 자식들한테 내려오죠. 그러니까 천도해라. 마음을 공부해라. 돌아온 공부를 해라. 그렇다면 어떠한 영계성이든 유전성이든 세균성이든 업보성이든 다 한 겹의 물방울이다. 물방울을 열 개를 속에 넣어도 한 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고도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물도 말갹게 맑은 물로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대대로 대대손손 그런 유전에 의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만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부모나 미래의 자식이나, 과거에 살던 자기나 미래에 자기가 갈 거나 모든 걸 한데 합쳐서 지금 막 요리를 하는 거죠.

막 그냥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막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작업만 한다면 그계 참신이고 관법입니다. 집어넣는 그 수행만 한다면 자동적으로 생안이 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집어넣는 수행만 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살아야 할 테니까 '너만이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 어 줄 수 있다. 너만이 나쁜 짓을 안 하게 할 수 있어.' 하시고 속상하면 '아, 마음을 싱그럽게 하고도 오래 살지 못하는데 아니, 왜 마음을 이렇게 속상하게 해 주느냐.' 이렇게 하시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몸뚱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약속할 것은요, 여러분이 진짜로 여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려면 아주 반드시 '마음은 체가 없구나. 마음은 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됐다 저게 됐다' 마음대로 자유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알아서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 뉘놓고 내 몸 빼놓고 무슨 종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출중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는 병고 없고 애고 없고 그래야만이나도 편 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뭐 기도한다고 집을 비우거나 해서 애들 밥을 지어 주지 않거나 또는 남편 음식을 소홀히 생각하거나 나리저리 돌아다녀서 집안 가사를 잘 못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정을 빼놓고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데 좀 더 너그럽고 화합해서, 또 애고 가 없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이 마음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 위 문은 1993년 8월 15일 국내지원위원회에서 설립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 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열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색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색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78,500원
원형 알갱이 자색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죽동 54번지 www.msij.co.kr

천비록(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秘錄!"

도서 구입 문의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값 15,000원

이 책은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누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알라딘 / 예스24 / 동원서적/경인문고/홍문당서점/계몽문고/처음서림/세원출판/중앙당서점/총장서림/홍지서림/영광도서/세기서림/타라문고 등에서 절찬리 판매중

무료배송 66% **무료배송 57%**

에pson AL-2310D 125,000원

교세라 FS-1120D 110,000원

무료배송 70%

OKI-B410D 90,000원

모델별 한정수량 특가 판매

하루사용 AAA급 브랜드 레이저프린트(흑백) 특별가 행사
- 하루사용 특AAA급 종고
- 전시상품 절대 아님
- 16시 이전 주문 당일배송

구매문의 **칠성상회 02-879-2007**
네이버 **다움**에서 칠성상회 검색
입금계좌: 농협 1282-17-003433
예금주 한메소프트(주)